

# “차나 한잔 들고 가세요”

경치 좋은 산사에서 무료다실과 다도대학을 열어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신형 바람을 불어넣는 곳이 있어 화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 중턱에 자리잡은 수종사가 바로 그곳.

###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무료다실 열어

### 다도대학 설립...주말 등산·기도객 애용

는 기회를 자연스레 제공하기 위해서다.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다도대학은 주지 동산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의와 시작해 대인 운부용씨와 박희준씨의 행다법과 다이론 수업이 격조로 이어진다.

“차를 마시기 위해 자세를 바로 하더라도 어느새 마음까지 청정해 집니다.” 본격적으로 다도를 배우기 위해 다도대학에 원서를 냈다는 이 무량정(서울 서초구 서초동, 49) 보살은 처음 배운 행다법이 아직은 서툴지만 '다선일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며 이렇게 말했다.

다. 일주일에 한번은 도반들과 수종사를 찾는 이보살은 오전 기도 후 점심공양을 마치고 꼭 다실에 들러 차를 마신다. 요즘은 시어머니와 아이들도 함께 들릴 때가 많다.

중창불사가 한창인 수종사는 무료다실을 연 이후 찾는 사람이 더욱 늘고 있다. 평일에는 주로 등산과 기도를 겸해 찾는데, 많은 땀 하루 100명이 넘는다. 이렇다 보니 정기적으로 참여하러 오는 사람도 늘고 있다.

무료다실을 개원한 이후 가족 단위로 절을 찾는 신도들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주말이면 다실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수종사 무료다실에서 한가로운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민들.

정도. “가족들과 절을 찾고 차를 마시면서 어릴 적부터 목탁소리, 염불소리에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다실 운영을 맡고 있는 천혜림 보살은 전한다.

무료다실은 오전 9시~오후 5시30분 예불시간(오전 10시30분~12시)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처음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다도법을 가르치고 있다. 예법에 얽매기 보다 편하게 차를 우려먹는 법을 주로 가르친

다. 수종사는 조선말의 대표적 다인인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의 교유지로 유명한 곳. 특히 약사전 아래 바위에서 샘솟는 석간수는 차맛을 잘 우려내기 위해 “물 맛은 수종사가 최고”라는 말이 전할 정도다. (0346)576-8411

권형진 기자

(jinny@buddhania.com)

# 원주 청림사 소음·먼지 극심

### 민원제기에 채석장 업주 '도로봉쇄' 으름장

채석장의 소음과 분진공해로 원주시 부면면 손곡리 소재 청림사(주지 청림)와 마을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동경석채측은 환경공해를 줄이려는 커녕 사찰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를 폐쇄하겠다고 사찰과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가 어렵게 1000만원을 모아 직접 포장했다.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공해로 민원이 발생하자 채석장측이 지난 5월23일 도로의 소유권을 뒤늦게 주장하며 이를 폐쇄하겠다고 사찰과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원주시는 지난해 말 채석장의 소음도가 허용기준치인 65db보다 2db초과한 사실을 실측결과 확인했지만, 채석장 여건상 방

음시설 설치와 힘들고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만 한 후 최근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채석장의 불법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청림사 측은 “엄청난 산림훼손과 소음공해를 일으키면서도 도로를 불모로 큰 소리 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채석장의 횡포”라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와 연계해 수평환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제주 관음사터 훼손

### 도자기등 출토지역 도로 건설

고려와 조선시대에 제주도 관음신앙의 모태였던 복제주군 조천읍 소재 관음사지가 임항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훼손돼, 물의를 빚고 있다.

조천리 일주도로와 조천포구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로 훼손된 관음사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60년대 말에 이어 최근에 도 기와·도자기 조각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관련 학계에서는 “한번 훼손된 문화재와 문화유적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도로 확·포장 등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제주군은 관음사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사찰 유적지가 도로부지로부터 편입될 경우 시굴조사를 통해 유물·유적을 확인한 후 도로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 장보고 축제때 호국영령 천도재

### 광주사암련 완도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스님)는 제5회 장보고 축제의 일환으로 5월31일 전남 완도 해변에서 호국영령 전통군경 천도 및 선상방생 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완도불교사암연합회장 법일스님, 광주불교사암련 부회장 성호스님, 완도 신홍사 이용태 신도회장, 차관훈 완도군수, 윤석민 완도군의회장, 김희문 장보고축제위원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천운스님은 법어를 통해 “선상 방생을 통해 불성을 지닌 듯 생명을 존중하고 갖가지 업

소 8곳을 '영천관광 8선'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시가 확정한 '영천관광 8선'은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혜사 △국보14호 영산전이 있는 거조암 △국내 최대법당 만불사 △국내 최대 규모인 보현산 천문대 △포은 정몽주를 모신 임고서원 △국포 등 경관이 좋은 치산관광지 △시원한 드라마 이브 코스 영천담 △소원성취를 점치는 복안 돌함매 등이다.

시는 이들 8곳을 연결한 관광코스도 당일과 1박2일 코스 두가지로 마련했으며, 홍보책자 발간과 인터넷 홍보에 나서는 한편 대구공항 등 관문지역에 관광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탐사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제

### 11일 3천여명 위패봉안

전북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해명)는 11일 오전 11시 탐사 대웅전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한다.

이날 위령제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억울하게 희생된 3천여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천도재를 모셔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11시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추모 의식, 천도재 순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지 해명스님은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고혼들이 천도재

를 통해 극락왕생의 복진을 일구길 기원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0655)433-0012 김재경 기자

### 전북불교회관 단오축제

전북불교회관은 전라세시종교보존회와 공동으로 6일 단오절을 맞아 전주 덕진공원에서 단오절 기념 민속놀이 5종경기 대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단오차례, 단오음식 및 부채 나누기, 찜포물에 머리 감기, 단오춤 경연대회, 견훤대왕제,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민속놀이 5종 경기 등으로 진행된다. (0652)275-4626 김재경 기자

가슴에 묻은 원혼을 위한 진혼의 노래

일제치하 태평양전쟁희생자와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위한 마이산 탐사 천도재

## 2000년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 천도재

태평양전쟁희생자의 원혼을 달래고 무주고혼의 혼령들을 천도하는 천도재가 마이산 탐사에서 거행됩니다.

신비의 영산 마이산 탐사에서 주최하는 천도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2000년 6월 11일(일) 11시
- 장 소: 전북 진안군 마이산 탐사 광장 특설무대
- 참가자: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및 일본의 관련단체, 일반시민
- 주 최: 한국불교 마이산탐사 천도재 추진위원회
- 주 관: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 후 원: 마이산 탐사 신도회

\*무주고혼의 영가위패 접수\* (위패 1인당 5,000원)

안내전화: (0655) 433-0012, 2900, 432-0652 FAX 432-0072 홈페이지: maisantapsa.co.kr / E-mail: maisantapsa@kornet.net

## 관세음보살님께 전수받은 띠업제

수십년간 작품을 모시고 영험을 본 기적!!

나의 작품을 모시고 재수가 있고 취적이 되고 입시등 시험 합격 가정이 화합하고 투쟁시비가 없고 부부간이나 가족이 마음이 안정해짐

수십년간 많은 영험과 기적은 수련한나의특경위신의 기력인것이다.

나의진짜 작품을 모셔보지 않은사람이이런 영험과 기적은모를것이다

▶입금계좌  
농협 801814-51-031377  
예금주: 김춘길

선천기간중 보금가

- 함죽반이신 친필 13만원
- 법화경 수필품 친필 20만원 10폭
- 불후나 기타 액자 친필 3만원

연락처: 0591) 746-7350 017) 552-7350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남이다 좋은 날이 되소서..

님!

4월은 잔잔한 바람 그림속 되어

하늘 끝 남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들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 건너 어린 중생 풀어주시어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원장 이영숙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벨(오피스텔) 8층 814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폰 : 018) 277-5592

## 종단소식

### 조계종

#### 분한신교 10월로 연장

총무원(원장 정재)은 5월30일 총무회를 열고 승려분한신교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실시한 분한신교에는 비구 450명, 비구니 460명 등 모두 9,100여명이 서류를 접수했다. 이는 90년 분한신교한 1만1800여명의 77%에 이르는 수치다.

### 일불선교종

#### 일불스님 4주기 추모제

초대 종정 이었던 일불 서경보스님(사진)의 열반 4주기 추모법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불선원 대법당에서 열린다. (02)394-9468

### 법륜종

#### 새 총무원장에 창법스님

5월29일 제29회 임시총회양회를 열어 공석이던 총무원장에 창법스님(충남 논산 지장암 주지·사진)을 선출했다. 창법스님은 1938년 논산 생으로 81년 보광사에서 금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81년 남호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96년 정각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법륜종 유지재단 이사, 중앙총회의원, 연수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 종화종

#### 원찰건립 내달 논의

총무원(원장 남정)은 5월 31일 수진사 관음전에서 상임위원 22명 등 종단 간부 7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찰 건립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내달 22일 열리는 부산 회의에서 원찰건립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 전각종

#### 군법당 건립기금 1천만원

성초 통리원장은 1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초격 한영규 법사 일행의 예방을 받고 군법당 호국관유사 건립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원장 남정)은 5월 31일 수진사 관음전에서 상임위원 22명 등 종단 간부 7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찰 건립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내달 22일 열리는 부산 회의에서 원찰건립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통리원은 중국불교협회와의